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중단 위기

익산시, 시공사측 일방적 도급내역 변경으로 협의 진행 중…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

익산시가 추진 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측의 일방적 도급내역 변경으로 장기간 중단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인 D와 의견 대립으로 6차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익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밝혔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돼 오는 2019년 준공될 계획이었다.

익산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돼 공정율은 59%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성공사는 D사외 3사등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으며 D사가 주 시공사면서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69.368%로 낙찰 받았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는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책정된 국비 809억원을 투입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7년에 시비 150억원을 편성해 공사를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D사측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토취료를 설계변경을 통해 요구하고 있으며 순성토 운반비를 변경·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장물도 미 보상을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비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가 D사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토취료 약 84억원과 순성토 운반거리를 25㎞로 가정할 경우 62억원, 공사기간 연장할 경우 15억원 등 총 161억원 가량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측은 대림산업의 요구사항이 터무니없어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D사측은 시와 협의 없이 도급내용과 다르게 시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을 통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구상까지 내놓고 있다.

게다가 시는 또 시공사, 감리단이 내놓은 공사 성토량이 다른점, 교량 선정공법 논란, 시공부분 과다한 준공처리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전북도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김철모 부시장은 "대림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시공사가 공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장물로 인해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시와 협의하고 중이나 시공사는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시가 계약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해소되면 공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을 달린다

군산시, 전북 마지막 성화봉송 안착지 선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성화봉송이 내달 3일 전북도의 마지막 안착지로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을 달린다.

12월 3일 오전 11시, 성화봉송 주자는 군산 나운신협을 출발해 월명종합경기장, 경암동철길마을, 진포사거리 등 군산시 일원을 달린 후 오후 7시 이후 근대역사박물관에 도착하여 성화를 안치할 예정이다.

성화봉송 주자가 근대역사박물관을 도착하기에 앞서 박물관 옆 행사장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성화봉송을 환영하는 지역축하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에어로빅 부문 금, 은, 동메달을 석권한 유명 에어로빅팀의 화려한 무대를 비롯하여 대북, 태평소 등을 활용한 '진포의 태동'이라는 주제의 창작 대북공연이 펼쳐지고,

이어서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의 성화 안치가 끝나고 나면 군산의 역사를 현대적 탈놀이와 춤사위로 표현한 김정숙 무용단의 '진포의 메아리' 공연이 축하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의 군산시 안착을 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의 개최지로 선정됨으로써 자랑스러운 군산의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성화를 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21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식품가공운영실무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식품가공운영실무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21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식품가공운영실무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인력양성과정에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 중 순수본(주)이 첫 번째로 교육에 참여한다. 앞서 순수본(주)은 지난 9월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와 업무교류 및 취업연계 맞춤훈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입학한 19명의 교육생들은 1개월 간 식품가공운영의 실무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을 마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순수본(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생들은 최종 합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입학식에 참석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은 "이번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훈련을 제공해 취업은 물론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별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한 실업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 사업으로, 모든 교육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해외진출기업 유치위해 중국방문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20~21일까지 2일간 중국진출기업과 관계 증진과 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청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등 시청 관계자 5명과 민충기 민간유치단장, 박종대 시의원, 정윤희 신라주얼리 대표 등 민간유치단 6명이 함께했다.

주요 일정으로, 11월 20일 청도해주공예품유한공사를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졌으며, 연이어 10여개 주얼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졌다.

11월 21일에는 청도한미래주보유한공사 및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를 방문하는 등 군더더기 없는 실무형 방문을 통해 익산시의 기업유치 여건과 의지를 확고히 전했다.

특히 기업들은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 관련법 개정요구, 초기투자비용 과다 부담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임대지원, 도금장 및 R&D지원·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이에 익산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책 및 세제혜택과 더불어 익산시의 추가적 투자지원책을 설명하고, 기존 익산에 구축된 인프라를 보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얼리산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도 부합되는 만큼, 해외진출기업이 익산으로 복귀 시 안정된 기업환경을 제공하여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멀리 타지에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군 해외진출기업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내년 예산안 1조805억원 편성

올해 9807억원보다 10% 998억원 늘어

익산시의 2018년도 재정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으로 1조80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9807억원 보다 10%인 99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재정규모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되면서 편성됐다.

1조805억원의 재정 중 일반회계 9694억원, 특별회계 1111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급액확대 등 복지분야 사업과 주요 국정시책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당초예산 8610억원 보다 1084억원(12.6%)이 증가했다. 상하수도·공영개발 특별회계 등은 81억원(7.5%)이 감소한 1111억원이다.

시는 사회복지 3683억원, 농림해양수산 1382억원, 문화·관광 653억원, 보건환경 873억원, 교통·지역개발분야 865억원, 공공행정·안전 594억원, 교육분야 185억원 등을 편성했다.

2018년도 예산은 교육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모이는 매력있는 도시 익산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교통약자 위한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

군산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야간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시간을 24시간(365일) 체제로 전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에서는 그동안의 이용자들이 심야시간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겪었던 불편함의 해소는 물론 노후화된 차량 2대를 교체하고 카드 결제기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들의 편익 개선에 나섰으며, 장애인콜택시 심야 이용자의 추이를 분석해 시간에 따른 운행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시간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 반영하여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